

研究資料

日本의 地域農業振興論*

그 背景과 發展過程

李 貞 煥**

- I. 序論
- II. 地域農業振興論의 背景：基本法 農政의 귀결과 70年代의 農業問題
- III. 地域農業振興政策의 發展：地域農業振興特別對策과 地域農業 振興計劃
- IV. 日本地域農業振興事業의 成果와 課題

I. 序論

최근 우리나라에서 「地域農業」, 「地域農業振興」이란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특히 農協中央會가 1984년 「地域農業綜合開發」을 농협의 중점사업으로 제시함으로써 「地域農業振興論」이 현실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地域農業」 혹은 「地域農業開發」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 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本稿는 우리보다 앞서 地域農業振興論이 대두되었고 地域農業振興事業이 추진되어 온 日本에서 地域農業振興論이 어떤 배경 아래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대두되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전략,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地域農業振興」에 대한 인식의 통일을 기대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日本의 개념과 방법을複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複製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地域農業振興이 어떤 목적, 어떤 전략,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思考의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II. 地域農業振興論의 背景：基本法 農政의 귀결과 70年代의 農業問題

日本에서 地域農業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이고 地域農業振興政策이 日本 農政의 중요한 전략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말이다(山本). 이와같이 地域農業論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른바 基本法農政이라고 이야기되는 1960년대의 日本農業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李貞煥).

1. 基本法 農政의 目標

1960년경 국민 1인당 GNP가 2,000\$ (1980년

* 本稿는 農協中央會에서 개최된 “地域農業振興에 관한 연수회”(1987. 10)의 강의 교재로 作成되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首席研究員.

불변가격)을 돌파하면서 ① 農家 非農家 사이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② 개방화 정책으로 해외農產物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③ 쌀 등 곡물의 소비는 감소되는 반면 畜產物과 채소 과일 등의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日本은 1961년에 農業基本法을 제정하고

① 農業經營規模 擴大와 協業을 적극 지원하는 構造改善政策

② 農地改良과 施設, 機械의 導入을 적극 지원하는 投資政策

③ 穀物生產을 지양하고 需要增加가 예상되는 畜產, 채소, 과일 등의 생산을 장려하는 선택적 擴大政策을 제창하였다.

먼저 경영규모 확대와 협업 장려를 위하여 3ha所有上限을 철폐하고 農產法人 제도를 도입하여 所有權 이전에 의한 農地의 流動과 規模擴大를 기대하였다.

둘째로 農業資本을 근대화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대대적인 農業構造改善事業(1961~71, 1969~78)과 土地改良事業(1965~74, 1973~82)을 실시하여 農業生產性(특히 勞動生產性)의 획기적 향상을 기도하였다. 끝으로 선택적 확대를 위하여 畜產施設과 비닐하우스, 온실 등의 원예 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主產地 育成事業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日本農業은 더욱더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2. 農地流動의 부진과 兼業農業의 增加

1960년 이후에 전개된 日本農業의 특징은 經營規模 擴大가 지극히 부진한 가운데 兼業農家 — 특히 2종 兼業農家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土地價格 상승에 따라 農地價格이 급등하여 농지의 資產의 期待價值가 크게 상승하였고, 둘째 非農業部門의 고용증가가 勞動力의 自然增加率을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農家勞動力의 非農業 就業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세째 農地法이 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耕作權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였으므로 經營主의 農外就業後에도 대부분의 農家가 所有權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所有地를 자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兼業農家の 증가는 農業生產에 여러 가지 問題를 제기하였다. 兼業農家는 勞動力 부족으로 粗放的인 水稻單作에 그치거나 休耕하기 때문에 土地生產性이 대단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自耕을 고집한 결과 專業農마저 經營規模를 확대하지 못하여 다시 兼農業으로 변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耕地利用率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 이들은 農業所得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農業에 관심이 낮고 따라서 農家間의 協力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農村勞賃의 상승에 따라 기계화는 진행되었으나 기계의 가동율이 낮고 效率性이 떨어져 기계화가 農外所得에 의존하는 현상이 兼業農家 사이에 일 반화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農業構造 때문에 農산물의 生產비가 높고 따라서 그만큼 國內外 農產物 價格差를 확대시켜 해외로부터의 輸入開放壓力과 국내로부터의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農地流動化를 촉진시켜 효율적인 專業農構造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위에 1970년대 초부터 農地法을 개정하여 小作料 統制를 폐지하고, 貸借에 대한 法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兼業農의 農地貸貸—脫農을 촉진시키려 하였으나 성과는 기대한 것에 크게 못미쳤다.

3. 쌀의 生產過剩과 耕地資源의 遊休化

1960년 이후에 나타난 日本農業의 두번째 특징은 쌀의 생산 과잉으로 政府補助에 의하여 休耕과 轉作을 장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1968년부터 쌀의 過剩在庫가 나타나자 休耕하거나 他作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10a당 30,000~40,000円씩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같은 보조금으로 쌀의 栽培面積은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休耕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專業農家는 經營規模 확대에 곤란을 겪고 있으면서 耕地資源은 遊休化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쌀 이외의 모든 穀物生產은 급격히 奢퇴하여 食糧自給率은 30% 수준대로 떨어졌다. 또한 轉作地의 일부가 채소 生產에 이용되어 채소가격이 폭락하였다. 이같은 不合理를 제거하기 위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大豆, 飼料作物, 麥類 등 國內生產이 부족한 土地利用型 作物栽培를 장려하기로 하고 이러한 作物栽培에는 加算金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作物은 기계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으므로 轉作畠의 團地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團地化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 加算金을 지급하는 등 耕地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좀체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4. 채소生産의 不安定과 供給過剩

1960년대 채소需要가 급증함에 따라 生產地를 육성하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第1次 構造改善事業에 의하여 主產地 형성에 필요한 施設資金이 적극적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1970년경부터 채소需要가 완전히 정체되기 시작한데다 쌀 生產過剩에 대처하기 위

하여 轉作을 장려하였으므로 채소 生產은 급작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채소의 供給過剩으로 價格의 폭락현상이 번번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供給過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主產地는 포장, 선별 등을 통한 競爭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만큼 流通費用이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主產地 地域은 연작피해가 점차 극심하여져서 채소농가는 가격 불안 위에 生產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5. 畜產經營의 問題

畜產이 점차 畜產專門農家에게 집중하게 됨에 따라 畜產農家는 두 가지 問題에 봉착하였다.

첫째, 所得增大를 위하여는 多頭化가 불가피한데 農地流動이 부진한 상황에서 多頭化할 수록 粗飼料 기반이 취약해져 品質維持, 生產費維持가 어렵게 되었다.

둘째는 多頭化될수록 分뇨처리 문제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가축분뇨의 하천방류 등 畜產公害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분뇨처리 문제는 畜產專門農家에게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III. 地域農業振興政策의 發展 :

地域農業振興 特別對策과 地域農業振興計劃

地域農業振興論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日本農業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戰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地域農業振興政策은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갑자기 조립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發展과정을 가지고 형성된 것이다.

1. 地域農業振興論의 發展

日本에서 地域農業振興論은 크게 두 가지 줄

기에 따라 전개되었다(賴平).

첫째는 각地域別로 主產地를 형성하여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產地間의 生產調整으로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地域農業振興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主產地育成事業, 地域農業團地育成事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野菜供給安定基金」제도이다. 「野菜供給安定基金」은 1966년 主產地의 經營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藤谷).

먼저 「指定野菜」를 생산하는 主產地를 「指定產地」로 지정한 후 이 지역의 生產者團體(農協)와 일정한 물량을 생산하여 「指定市場」에 출하하면 일정한 價格水準을 보장하기로 약정(3년 단위)을 체결한다. 이때 각 主產地가 이 사업에 가입하느냐의 여부는 자유이지만 이 사업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生產規模와 技術條件를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生產者團體(農協)는 다시 主產地內의 각 農家와 生產契約을 체결한다.

生產者團體가 실제로 「指定市場」에 출하하면去來傳票가 「基金」과 團體에 동시에 교부되고 만약 그 平均價格이 약정된 「保證價格」에 못미치면 부족부분을 「基金」이 「團體」에 지불하고 「團體」는 다시 농가에 지불한다.

이 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主產地의 育成에 목표를 둔 것이었으나 生產過剩과 產地間競爭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保證價格을 인하시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地域農業의 安定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日本農協中央會가 1978년 전국적인 生產調節計劃을 발표하고 全國農協를 연결하는 生產조절一공판체계를 수립하기로 함으로써 主產地形成一生

產調節을 목표로 하는 地域農業振興論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牧原).

日本에서 발전한 地域農業振興論의 또 한 가지 줄기는 각 지역이 갖는 특수한 사정과 조건에 의하여 그 지역만의 특이한 農業問題가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발전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자연히 그 지역의 農業問題를 분석하고 發展計劃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地域農業振興計劃이 市町村別로 수립되게 된 것은 1975년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이 실시되면서부터이다. 農地의 賃貸借가 農地法 规定에 의하여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日本政府는 農業地域振興法에 의하여 「農用地利用推進事業」을 추진하였다. 즉 각 市町村이 관할지역을用途別로 區劃하고 農業地域에 대해서 종합적인 農業振興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農地法의 규제를 받지 않고 農地가 賃貸借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각 市町村은 農地의 流動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두 각각의 農業振興計劃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計劃은 地域의 실정과 農民의 의사를 수렴하여 수립되기보다는 대부분 政府가 제시한 모델을 복사한 것이었으므로 현실적 의미가 박약하였다.

그후 政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日本農業의 곤경은 각 지역의 칭의적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資源利用 질서를 구축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977년 「地域農業特別對策」을 발표하였고, 農協中央會는 1978년 모든 農協이 「地域農業振興計劃」을 수립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地域(農民, 團體, 自治體)에 의한 地域農業振興」을 내용으로 하는 地域農業振興論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두 가지의 地域農業振興論은 모두 지역마다 農業資源의 遊休化—耕地의 遊休化, 粗放化,

專作化, 機械의 稼動率 低下, 農 산부산물(벗짚, 축산분뇨 등)의 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農業에의 욕을 가진 농가는 도리어 資源不足에 직면한 모순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각 지역의 농업 나아가서 日本農業은 발전할 수 없고, 또 그 해결은 地域內 農家, 團體 그리고 自治體의 役割分擔 아래 그 지역 나름대로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위에 서 있다.

그리면 1980년대에 地域農業振興政策의 구체적 형태로 등장한 日本政府의 「地域農業特別對策」, 農協의 「地域農業振興計劃」 그리고 역시 農協의 「農產物需給調節事業」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자.

2. 「地域農業振興特別對策」의 체계

1977년 政府에 의하여 제정된 이 對策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構造改善局).

가. 地域農政 綜合推進事業

市町村內의 農業關聯機關과 단체가 協議會를 구성하여 자기 지역의 農業問題와 發展方向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각각의 역할을 조정한다.

나. 地域農業集團育成事業

대체로 몇 개 부락을 한 단위로 하여 「地域農業集團」을 결성한 후,

① 農地利用 狀況圖作成, 農業經營 意向調查 등을 실시하여 地域內 모든 농가가 地域內 農業資源의 效率的 利用方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한 후

② 專業農家에게 貸借地를 알선하고 農地의 일시적 交換利用, 季節貸借制度를 만들어 경지의 집중화를 도모한다.

③ 農作業 수탁조직, 운전자조직을 발전시켜

農機械의 效率적 利用을 도모한다.

④ 中間生産物의 交換利用과 耕地의 交換利用制度를 만들어 지력 유지와 연작피해, 축산공해 문제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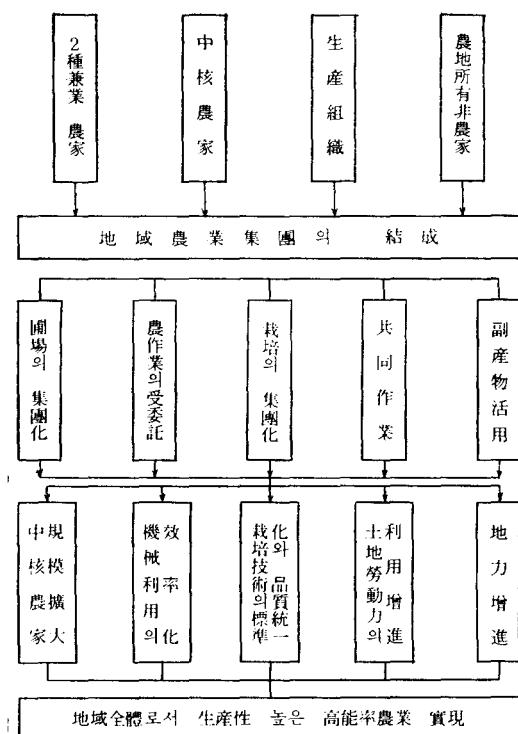
다. 農用地高度利用 促進事業

農地改革과 農地法의 強行때문에 農地制度의 개선만으로는 農地의 流動化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市町村은 다음과 같은 農用地高度利用 促進事業을 추진하였다.

① 農地를 임대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所有權에 대한 불안을 일으시키고 그 利點을 인식시켜 貸貸를 촉진시킨다.

② 이렇게 집합된 貸貸地는 農地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貸貸借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그림 1 地域農業集團의 概念



하고 長期賃貸의 경우에는 賃貸人에게 10,000円/10a(3~6년의 경우), 20,000円/10a(6~10년), 30,000円/10a(10년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地域內 農地情報銀行을 설립하여 農地의 所有, 利用現況에 관한 資料제공, 筆地別賃貸借 현황과 계약내용에 관한 資料제공, 기타 賃貸借 농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地域農業振興計劃 樹立」의 體系

日本農協中央會는 政府가 「地域에 의한 地域農業의 振興」을 80년대의 政策方向으로 표방하자 이를 받아 각 地域農業의 發展方向과 이를 위한 실천방안--地域農業振興計劃--을 전국 各農協이 작성할 것을 촉구하였다(農業研究センタ).

이 계획에는

① 각 地域의 農業發展方向에 관한 「地域農業振興基本計劃」

② 각 農家와 마을의 「營農計劃」

③ 「農用地利用計劃, 生產計劃, 生產者組織計劃」을 포함하는 「地域農業推進 具體化 計劃」

④ 「農協의 事業計劃」 등 네 가지가 포함된다.

「基本計劃」은 日本農業의 여전과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동시에 地域內 農家の 의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이 때 地域農政 總合推進事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具體化計劃」은 반드시 地域內 農家の 의향과 营農計劃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작성된다.

「農協事業計劃」은 農協의 發展方向을 설정하고 사업량을 확대하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地域農業振興에 관한 ①②③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作成된다. 地域農業振興計劃에 農協이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농협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地域農業振興計劃의 樹立 및 推進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地域內의 農業實態와 組合員의 의향을 조사한다.

② 地域農業의 여전을 分析 전망한다 (地域內 (他產業動向, 人口動向, 他計劃(國土計劃 등), 農產物 出荷市場動向 등)).

③ ①, ②에 입각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협의한다.

④ 地域農業振興基本計劃을 작성하고 협의한다.

⑤ 農家別 營農計劃 작성을 지도하고 綜合한다.

⑥ 「基本計劃」을 확정한다.

⑦ 「具體化計劃」을 수립한다.

⑧ 「農協事業計劃」을 수립한다.

4. 「農產物 需給調整事業」의 體系

日本農協中央會는 각 農協의 地域農業振興은 전국적인 需給調整에 의하여 價格安定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동시에 전국적인 需給調整은 전국의 地域農業振興計劃이 있으므로 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인식 아래 地域農業振興計劃樹立事業과 農產物需給調整事業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다(牧原).

農協의 需給調整事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첫째는 市場別 出荷量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1978년에 양파와 감자 主產地 作目班들로 出荷協議會를 구성하여 出荷量을 조정하였다. 또 하나는 상치, 오이, 꾀만, 양배추 主產地 作目班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需要展望과 적정 作付面積 등에 관하여 共同計劃을 작성하는 사업이었다.

1980년 政府가 「野菜供給安定基金」을 원활하

게 운용하기 위하여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供給調整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生產調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產地處分費用의 1/2을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政府의 사업을 받아서 農協中央會는 「中期需給均衡計劃」과 「單年度需給均衡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中期計劃은 1년을 계획기간으로 먼저 수요 전망을 하고 이에 따라 각 縣 그리고 각 農協의 生產目標를 제시함으로써 각 農協에게 하나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한편 單年度需給均衡計劃은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각 농가의 재배 의향을 취합하여 農協의 生產計劃量을 작성하고 이것을 취합하여 전국적 生產計劃量을 산출한다(76作目 대상). 다음은 이 計劃量을 需要函數에 적용하여 예상가격을 산출하고 이 價格이 目標值보다 낮으면 必要調整量을 산출하여 각 縣과 농협에 협력을 요청한다.

IV. 日本地域農業振興事業의 成果와 課題

1. 事業推進成果

地域農業集團은 2,800市町村에서 28,000여 집단이 결성되었다. 대체로 1~2부탁이 하나의 집단을 결성하는 예가 가장 많고 한 집단은 평균 54호로 구성되어 있다(構造改善局).

農用地高度利用促進事業도 대단히 성공적이다. 農地流動面積이 3배 이상 증가하고 作付地의 團地化가 촉진되었고, 土地利用型作物의栽培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賃貸地의 계약 기간이 6년 이상인 長期賃貸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農家間의 協力과 共存은

農家戶數의 감소를 억제하여 호당 規模擴大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가 금후의 課題이다.

農協의 地域農業振興計劃은 대부분의 農協에서 작성되는 등 참가율이 높으나 아직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농가의 의향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보다는 농협이 독단적으로 기존의 모델을 복제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計劃의 基本目的은 지역의 發展方向과 協力方案을 도출하는 유도적인 것인데 지나치게 物量計劃 위주의 計劃이 되어 실현성이 낮고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끝으로 需給調整計劃은 아직까지 각 農協에 生產量을 축소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시도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目標價格 예시가 도리어 생산을 자극하여 過剩生產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計劃에 참가하지 않은 農家の 교란으로 실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2. 韓國의 地域農業振興

최근 우리나라에서 “地域農業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地域農業」이란 전에 별로 듣지 못하던 용어인 만큼 생소한 느낌을 받지만, 「韓國農業」이란 世界農業 가운데 「韓國地域의 農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地域農業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고 새삼스럽게 따질 것도 없이 韓國農業을 이루고 있는 「성주의 農業」, 「진안의 農業」, 「서산의 農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地域農業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韓國農業」의 振興은 「성주農業」「진안農業」「서산農業」의 振興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韓國農業」의 振興이 곧 「성주農業」의 振興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 그리고 「성주農業」과 「진안農業」, 「서산農業」이 각기 다른 여건에 처해 있고 나아가야 할 길 또한 각기 다르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農協의 地域農業振興은 主產地 형성을 위한 生產計劃과 所得目標計劃에 중점을 두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해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需給調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地域農業이 이와같이 主產地形成과 所得計劃 그리고 需給調整物量 계획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면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리어 각 지역의 農業資源이 유효하게 쓰이지 못하는 지역 특유의 문제, 혹은 農業資源이 부족한 지역 특유의 문제를 찾아내서 中央政策 프로그램에 연결시키고 동시에 地域內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農業中央會, 「地域農業綜合開發 方向—計劃樹立의 節次와 方法」, 農協中央會, 1984.
- _____, 「地域農業綜合開發—課題와 方向」, 農協中央會, 1985.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地域農業開發의 方向과 課題」, 農經研, 1986.
- 李貞煥, “韓國은 日本의 農業構造變化를 뒤따를 것인가?”, 農村經濟 第10卷 第1號, 1987, pp. 53-70.
- 高橋正郎, “自治體 農政とは 何か,” 「農業と經濟」(1982. 11), pp. 5-12.
- _____, “地域農業再編の 論理,” 「農業構造改善」(1979. 4), pp. 8-13.
- 構造改善局, 「新しい構造政策の 展開」, 地球社, 1985.
- 農業研究センター, 「地域農業의 計劃手法」, 農林統計協會, 1983.
- 桐生司一郎, 「地域農業の進路」, 明文書房, 1979.
- 藤谷築次, “野菜需給調整對策의 意義と限界,” 「農業と經濟」(1978. 8), pp. 5-12.
- 牧原透, “野菜の需給調整と系統農協の役割,” 「農業と經濟」(1978. 8), pp. 19-25.
- 山本修, “地域農政の系譜と問題點,” 「農業と經濟」(1978. 8), pp. 5-11.
- 城島國弘, “地域農業政策の 問題意識,” 「地域農業の振興と計劃」, 樂游書房, 1981.
- 賴平, “立地論からみた地域農業發展の 論理,” 「農業と經濟」(1982. 6), pp. 5-11.
- _____, “地域農業振興의 課題,” 「地域農業の振興と計劃」, 樂游書房, 1981.